

## 제4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4. 15 (월), 15:00 ~ 19: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김호섭 의장, 이순일 부의장, 나상신 평의원, 윤성승 평의원, 이재호 평의원, 임정민 평의원, 정승민 평의원, 김진우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윤갑희 평의원  
- 총 13명 중 10명 참석 (불참 : 이강준 평의원, 이효철 평의원, 강희진 평의원)

### 4. 의안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심의사항 : 학칙 개정 내용
- 자문사항 : 학교회계 및 병원 회계 결산 자문
- 기타 논의 사항 : 국가장학금 II 관련 내용

### 5. 회의결과

#### 가.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대학평의회 규칙 제 5조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 대행자 지정)에 따라 김호섭 평의원을 직무대행자로 선정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함.
- 대학평의회에서 호선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김호섭 의장과 이순일 부의장을 선출함.

#### 나. 심의사항

- 아래의 학칙 개정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함.

#### [주요 개정내용]

- 제4조(기구) : [별표1] 여성센터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로 명칭 변경
- 제8조(대학원) : [별표2] 나노정보융합기술학과 폐지, 대우건설기술연구원 폐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설, [별표4] 임상치의학대학원 내에 소아치과학 전공 신설
- 제21조(학생정원) : [별표7] 2013학년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표기, [별표9] 2014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정원 표기 및 사회과학대학 정원 조정
-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 소프트웨어특성화학과와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38학점에서 39학점으로 변경

\* 상세내용은 제 2차 교무회의 (2013.3.19) 결과 참조

< 간서명란 >

의 장



다. 자문사항

1) 학교회계 관련 자문

○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관련

- 미사용 차기이월 자금의 규모가 과다함.
- 미사용 자금의 차기 이월은 명시이월을 원칙으로 하나, 2차 추경 예산과 목단위에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월되는 예가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차 추경 시점에 명시이월 항목을 확실히 설정 할 것을 권고함.
- 이월자금의 차년도 사용은 명시이월 내역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비회계 기술에 있어 이해 가능성 제고

- 현재 교비회계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특수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내역이 구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이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지장을 초래함.
- 향후 예결산 자문 시 위 세 가지를 구분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것.

○ 예결산 괴리의 축소노력

- 그 동안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치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산 금액 간의 차이가 큰 항목이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 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위의 분석 결과를 반드시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예결산 간의 괴리를 줄이도록 할 것.

2) 병원회계 관련 자문

○ 2012 학년도 의료 수익 예산 대비 큰 차이

- 지난 5년간 의료수익은 연평균 6.18% 증가한데 비해 진료 재료비는 연평균 8.85%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비용과 수익 증가율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약품비는 연평균 3.96% 증가하였음.
- 건강검진센터와 산업의학과의 통합운영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 원인 분석과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장례식장 수입은 감소 추세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 웰빙센터 신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익, 진료 수익에 있어 개선이 거의 없음.

< 간서명 란 >

의 장



○ 2차 추경 후 전입금 급감

- 2차 추경 후 병원으로부터 의대, 간호대로 오는 전입금이 급감한 것은 의대, 간호대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장애 요소가 될 소지가 있음.

라. 기타 논의 사항

○ 국가장학 II 관련 논의

- 국가장학 II 반영금액이 배정 금액의 44.4%인 것의 문제점을 제기함.
-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등록금을 좀 더 낮추거나, 교내 장학금 규모라도 늘려서 국가 장학금을 더 확보하려는 추가조정 작업 노력이 필요했음을 설명함.
- 1월 16일에 접수된 국가장학금 관련 공문을 1월 18일에 개최된 대학평의원회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예결산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주요 공문은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함.
- 국가장학과 관련하여 타 대학의 동향도 파악하고, 앞으로 자구 노력을 통해서 국가장학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 마련하여 추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이순일 평의원이 발표했던 자료를 첨부하고, 추후 학교의 경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함.

위 자료는 제4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부터 회의내용 전체를 녹취하던 방식을 핵심 사항 요약 및 중요 내용 일부 녹취 형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1차로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중요한 부분을 녹취록 형식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단, 학칙 심의사항 및 2012학년도 결산 자문사항의 경우 본 회의록으로 1차 보고하고, 최종 회의록은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입니다.

- 붙임 1. 학교회계 관련 주요내용 녹취록  
2. 병원회계 관련 주요내용 녹취록  
3. 국가장학II 관련 이순일 평의원 발표자료  
4. 국가장학II 관련 경과보고

< 간서명 란 >

의 장



## [붙임1. 학교회계 관련 주요 내용 녹취록]

평의원 이순일 : 명시이월이 원칙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이 있는 경우에 항목 그대로 이월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산액이 없는데 이월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액수가 작거나 사유가 이해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특별추진사업 개교 40주년 행사' 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없었는데 2억2천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재원이 시설관리비입니다. 사용 내역을 보면 계정 상 도저히 시설관리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월하는 동안에 예산항목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여기 결산자료에 있는 예산은 2차 추경이죠? 결산자료의 이월내역이라고 하면 2차 추경 기준 내역이겠죠?

예산팀장 조정숙 : 2012년 제2차 추경대비 결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시점에 각 부서에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쓰겠다는 것을 미리 확정해서 차기이월자금으로 편성한 경우도 있고요. 제2차 추경 시점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비 잔액을 결산 시점에 자문을 통해 차기이월로 요청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 시 명시이월하는 것은 국고사업, 연구비사업, 책임운영부서 이월사업 그리고 일반이월사업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결산시점에 차기이월자금으로 이월하는 금액은 사업에 대한 전체 잔액을 의미하고 그 잔액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2013년 제1차 추경 때 자문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전체 액수만 확정을 하고 실제로 어떤 사업에 쓸지는 지금 확정 되지 않고 나중에 확정 되는데 그걸 미리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평의원 이순일 : 제가 그래서 사용계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결산 계정의 관, 항, 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시설관리비라는 계정과목에 대학특별추진사업 개교40주년 행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예산팀장 조정숙 : 예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면 대학특별추진사업 개교 40주년 사업 등 이라는 것은 사업명이구요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계정과목이 시설관리비라는 것이었습니다. 교비예산을 100%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부서의 모든 계정과목별로 작게는 1천원, 2천원부터 시작해서 600개에 해당하는 사업의 여러 계정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를 다 취합되면

< 간서명 란 >

의 장



실제로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남는 금액을...

교내 환경 중 원천관 뒤편 아향식당 부분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중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013학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가로 2억2천만원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학생들과 구성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될 것이며, 당연히 제1차 추경 시 예산자문을 확정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렇게 쓰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결산자료에는 개교 40주년 행사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등 이라는 것으로 표기를 압축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제2차 추경 시 지금보다 더 정확도를 높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오늘 본 문제 중 하나가 병원에서 오는 전입금이 47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총무처에서는 자금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상 47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누가 청구하면 지불을 하셨어야 할 텐데... 예산상은 분명히 의대나 간호대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해 오면 집행됐어야 하는 예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자금 집행 통제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도 결산자료의 수입과 지출이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그 부분은 저희 학교가 잘 아시겠지만 본교와 의과대학 회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속병원 전입금은 본교에서 집행권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회계에서 의료원의 부속병원 전입금을 받아서 의과대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속병원 전입금에 대한 통제는 의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결산 자문하는 형식이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예산 대비 수입이 크게 줄거나 예산에 없는 항목으로 이월이 이루어져도 결산부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결산 자문하며 몹시 헛갈리게 됩니다. 이를 테면 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임대보증금수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은 13억6천인데 결산은 7억입니다. 6억6천의 수입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결산자료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숫자가 맞으니까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6억6천만원의 수입만 더

< 간서명 란 >

의 장



있었어도 장학금을 늘려 국가장학금 유형2 소진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예산팀장 조경숙 : 수익에서 미실현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임대보증금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하게 결산되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보증금수입을 사업비로 쓰려고 했다거나 다른 운영비로 쓰려고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수입을 다른 경비로 쓰지 않고 그대로 정기에금이라든지 안전한 상품에 예치되어 차기이월자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십니다. 이게 수익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왜 합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다 쓰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자 수익을 기대하든... 결손이 생겼으면 학교의 수익에 결손이 생기는 건데... 숫자가 맞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학교가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하고... 자문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평의원 이재호 : 기본적으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호섭 :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자수익을 가상했다면 수익을 13억을 잡으면 안되지 않나요? 이자수익도 잡아야지...

예산팀장 조경숙 : 네. 임대보증금수입과 이자수입은 따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임대를 못 한 겁니다. 캠퍼스플라자가 공실상태로 남아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던지, 전후 사정을 따져보고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평의원 윤성승 : 예산을 세울 때는 100% 임대된다는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 조경숙 :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임대보증

< 간서명 란 >

의 장



금수입 13억원 중 7억원이 실현이 되었고 미실현액 약 6억원에 대해서는 예금이자 부분이 부족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총무처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업무이시니... 펀드손실에 대한 겁니다. 작년에는 29억5천6백만 원 손실인데 올해는 25억6천5백만 원이어서 손실액이 3억9천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도 25억6천5백만 원 손실은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것은 하나은행에서 지급요구가 새로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투 자산탁부에서 연락을 받는 것이 대개 이맘 때로 작년 같은 경우는 5월4일이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이자 때문에 늘어난 손실액이 3억6천정도 됩니다. 평가손실액이 아니라 선물환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손실액입니다. 올해 평가 손실이 3억9천 줄었다고 해도 선물환 손실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문제입니다. 거의 작년과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하면 3억6천만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작년에 남아있던 잔존가치가 14%였는데 여기서 3억6천정도 늘어나면 거의 깡통 계좌가 됩니다. 처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은행과 접촉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아니면 6개월 정도나 지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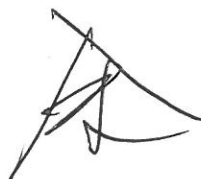
총무처장 이준섭 : 선물환 계약을 통해서 난 손실이 당시에 9억8천정도 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13억9천입니다. 정산손실만 13억9천입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13억9천이었죠. 그것이 원래 피텔리티 부동산펀드 28억짜리를 담보로 제공을 했거든요. 선물환 계약의 환차손을 헷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 부동산 펀드를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한 것인데... 피텔리티 부동산펀드 28억짜리가 원본에 가까이 왔어요. 그동안은 하나은행에서 돈을 물어내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원본이 질권 설정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목소리 높여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랬을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원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선물환 계약을 학교는 무효를 주장을 해왔고 통지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효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먼저 계약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우리가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부동산펀드를 환매를 하면 환매한 값이 그대로 질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으

< 간서명 란 >

의 장



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은행이 펀드 환매 분을 그대로 질취해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옳을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어느 것이 옳을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risk가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선뜻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자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보려고 합니다.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법인과 협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가능하면 일단 지금처럼 잠잠히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도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자금 수요가 늘어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억원 넘는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잘 해결이 됐으면...

총무처장 이준섭 :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들 텐데...

평의원 이재호 : 시간이 우리 편인가요?

총무처장 이준섭 : 우리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던 것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우리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워낙 가격이 질권설정 금액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팔수가 없어서 논의할 가치가 없었지만 지금은 원본에 가까이 왔습니다. 2월말 기준으로 26억 정도입니다.

평의원 김진우 : 시간이 가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 거 플러스... 은행 입장에서 보면 환차손에 대한 향후에 이자를 청구할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이 있다고 하면 위험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이익 아닌가요?

총무처장 이준섭 : 우리가 지게 되면 거기서 물어 내야 되는 것이 23억...

평의원 이순일 : 너무 오래 지체해서 이미 이자 포함 손실이 23억을 넘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작년 말 기준으로 23억 정도 되는데 이자 때문에 증권 설정한 금액 거의 다 가져갈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시간이 가면 이자가 늘어나니 100% 못 이긴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총무처장 이준섭 : 우리가 지면 28억짜리를 모두 버리는 것이 되고 이기면 28억을 모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어서 판단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근데 만약에 진다고 하는 거나 방치 하는 거나 그 돈은 펀드는 다 유실될 것 같고요. 단, 졌을 경우에 더 손해 보는 것은 변호사 비용만 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28억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저 같으면 먼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만 사실은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follow up했던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면 반반 정도의 확신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어쨌든 올해 안으로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 [붙임2. 병원회계 관련 주요내용 녹취록]

평의원 이재호 :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지난해 예산을 세울 때 다소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워 무리가 있었습니다. 웰빙센터의 경우 6개월 정도면 정상화가 가능 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운영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보험공단의 영상수가나 약제비 상환 부분이 줄어들었고, 진료를 많이 하시는 의사분들이 퇴직을 하시며 환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같은 권역권내 대형병원이 들어서면서 응급실 환자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으며 특히 소아 응급실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험법도 바뀌어서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50%로 상향되어 소화기내과나 내분비내과의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본인부담이 낮은 개인병원으로 이동하신 것 등도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의료수익의 증감률이 4%인데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은 7%에서 8%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약가인센티브 제도가 중단되면서 의료수익에서 54억 정도 감소가 발생했고, 영상수가 인하와 기타 의료 정책의 변화로 20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급

< 간서명란 >

의 장



작스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4.0% 이지만 6.1% 정도의 의료수익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료비용이 조금 높은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와 관리비는 웰빙센터 증축으로 인력증가 및 공간재배치 등의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재료비는 의료수익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JCI 인증관련 기준등에 맞추어 주사침 등의 고급 재료를 사용해야하는 등 재료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미 그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지난 5년간의 추세를 보더라도 2008년~2012년 사이에 진료수익은 매년 한 6%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약품비는 4%정도 증가했고 재료비는 9%가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재료비의 증가율이 의료수익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 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일단 재료비 인상과 관련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TF를 구성 했습니다. 외부검사를 내부로 전환하거나 검사비 인상, 치과 교정과목 추가 등으로 고가 재료비 증가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만 TF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은 70억, 87억 늘었습니다.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은 만족스럽지 않아도 수익 증가에 기여했는데 기타 수익은 8억9천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웰빙센터가 생기면서 훨씬 더 의욕적으로 수익을 증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8억9천이 줄었다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웰빙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평균 환자 80명에서 110명 내지 12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통합에 의한 경영효율성 문제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진료를 보시고 나서 MRI 촬영을 하라고 하면 과거에는 하던 분들이 안하거나 숙박검진 같은 경우가 줄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익증가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장이 신세계나 기타 여러 백화점에 특강 개설 등 비롯해 종합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간서명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전진과 산업의학을 통합해서 효과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네거티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6개월 만에 결과를 나타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므로 현재는 통합 후에 효과가 어떤지 추세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할 부분도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웰빙센터 때문에 건축면적이 늘어난거나 이런 것은 사실이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두 개 과를 합치다보니 수입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건물이 하나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익은 1억6천6백만 원만 늘었습니다. 처음 입주한 업체들은 월세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월세를 조금 받고 보증금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늘어났으면 이자수익이라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자수익을 보면 7천6백만 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웰빙센터가 생겨서 수지타산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분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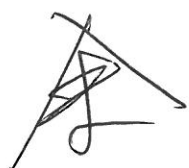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어려운 것은 웰빙센터 지하에 건축면적이 134평짜리하고 27평짜리 6.7평 3개가 아직 임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웰빙센터 건축 비용 때문에 임대료를 올려서 책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자금 운영사정에 따라서 다시 월 임대료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출수도 있습니다.

의료원 경리팀장 : 이자수익 감소와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에는 운영자금 220억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보시면 기말 자금이 14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웰빙센터 준공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요된 고정자산 투자항목 부채상환해서 약 4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자금 운영의 목표가 이자수익 증대가 아니고 건축자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고유목적사업 인출금이 원래 예산이 2차 추경 시 402억으로 잡혀있었는데 40일 정도 지난 2월 28일 결산에는 354억으로 47억2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47억2천만 원은 학교의 결산표를 보면 전액 교비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으로 들어가는 돈 47억2천만 원이 2차 추경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40일 동안에 줄어든 것인데 그동안에 40억이 줄어들면 인건비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생길 거라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차질이 생긴 사업이 하나도

< 간서명 란 >

의 장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저희가 의과대학의 운영비 전출금은 가장 큰 것이 실질적으로 임상재원이 가장 크고 나머지 등록금 재원이 자율도가 50% 조금 못 미칩니다. 저희가 운영비 전출금을 보낸 것은 전년도 저희가 59억 정도 이월을 했고 이월자금 내에서 운영하면서 현재 교육부 지침이 등록금 인상요인에 미사용이월자금을 너무 크게 운영하면 등록금 인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의과대학에 전출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 중에 차기이월액 줄어드는 것은 13억 이죠. 나머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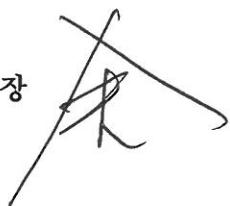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13억이고요. 나머지가 34억 정도 되거든요. 34억이면 조금 준 것입니다. 예산 작업을 할 때 추경을 4개월, 5개월 정도 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은 딱 2개월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까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34억에 대한 것을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억 정도가 있는데 인건비가 딱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원급여가 5억2천, 제수 당이 8천9백, 법정부담금2천8백, 이런 것이 모여서 7억 정도 되고 직원 보수가 같은 형태로 1억2천정도 되고 관리운영비도 7억8천정도 되는데 여비교통비 1천만 원 소모품 1천2백만 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어떤 큰 항목이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4~5개월 정도 추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정도의 것을 운영이 되리라 본건데 왜냐하면 의료원 예산은 의과대학만이 아니라 의료원 전체 임상지원까지 포함해서 산출하기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1~2월 달까지 정확하게 끊어서 확 줄여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은걸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비 같은 것이 4억6천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사유로 해외학회 연수로 따른 회계변경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연구비 대응자금 집행이월액도 3억4천이 줄어들었고... 등등등 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런 건들은 전반적으로 실제로 발생하는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발생하는 액수가 줄어드는 일은 후반기 몇 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1년을 통털어 꾸준히 발생하겠죠? 그리고 액수가 원래 생각했던 추세와 비교하면 처음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추경에는 왜 반영이 안 되죠?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여기 보시면 급여에 관한 것이 8.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일 년

< 간서명 란 >

의 장



에 대한 것이 나눠져 있다 보니 그런 거고요. 4억6천은 2월말까지 학회를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금년에 한해서 조정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2013학년도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2월말 이후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회계시점변경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평의원 이재호 : 이런 현상이 매년 있나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올해만 나타난 것이 2억 정도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잡아놓는 이유는 12월~2월 특히 1월 2월 방학기간 동안에 해외를 많이 나가시리라 예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없었던 것이 예산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나가시는 교수님들이 덜 나가신 거죠.

평의원 이재호 : 2월에는 학회가 별로 없어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왜냐하면 4개월~5개월 정도 추산을 하니까 12월~2월 정도에 예년에 비해서 나간다고 봤던 것이 반 정도 되고 2억 정도는 회계연도 인식을 잘못된 겁니다. 예산을 반영해 봤는데 실제 집행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처음 예산액은 350억. 예산액 대비로 1/7 즉, 15%정도 결산액 대비로 생각을 한다면 17~18% 이 정도의 차이가 나게 예산과 결산이... 더군다나 의과대학이며 간호대학에서 쓰는 돈이라면 발생하는 지출에 의거해서 계획을 짚어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을까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기획에서 예산을 짤 때 아이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종합적으로 인건비면 인건비, 관리비, Total 베이스에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 여기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무리 봐도 시스템에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병원의 운영수지 악화에 있으며 47억을 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실로 보입니다. 원인은 차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이월액 354억에서 281억 정도는 인건비니까 나머지 73억 정도가 의대, 간호대 운영비와 건축비 등일 겁니다. 아까 부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이

< 간서명 란 >

의 장



50%라고 했으니까 의대와 간호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운영비의 반절은 병원에서 와야 되는 거고,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2차 추경을 아무리 빨리해도 12월 중순입니다. 그때는 2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니까 학교 회계연도로는 의대나 간호대에서 발생할 비용은 이미 발생했을 것이고, 집행이 예상되는 비용도 상당히 파악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35억 정도가 비는 것은 문제입니다. 의대와 간호대가 본교의 예산통제를 안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고... 서로 이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하면 본교의 예산 집행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산 시점에 총 예산에서 35억이 비는데 왜 비는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이고.... 실제 의대나 간호대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예산 자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에서 괴리가 크게 나타난 것은 대학이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운영이 되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시스템의 취약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저희가 병원운영수익하고 의과대학의 전출금에 대한 것은 사실은 조금 더 남겨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차기이월을 남겨야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전부다 줄여서 1~2월 달에만 35억 정도가 예산대비 결손이 나다보니 1~2월 달 수익 자체가 줄다보니 전출금도 차기이월자금도 조금 반영해 봐야 내년에 운영하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을 차기 이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최소비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월 130억에서 150억 정도 나가고 재료비도 등 최소 자금 운영에 50억 내외는 유지하려는 목표가 있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에 대한 것은 병원 운영수익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전해 드리세요. 병원 수익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발생한 것을 분석하고 있고요.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더 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섭 : 지금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걸모양만 봐도 올해에 1회성으로 수익이 확 준 것인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서... 지금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과대 지원 문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수익과 지출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 학교차원에서 봤을 때는 비용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건 거론은 못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인건비나 관리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걸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윤기 : 알겠습니다. 순수 저희한테 들어오는 등록금이 112억 정도 되고 지출하는 운영비 인건비 빼면 250억 정도... 실제적인 운영비만 135억 정도 의과대와 간호대에 넘기고 있어서 자립도가 47.8%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붙임3. 국가장학금 II 관련 이순일 평의원 발표자료]

**등록금 상유 주요 대학 2013년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대학명	2012년 1인당 평균등록금 (기준)	2013년 배정금액	지원 인장 금액	지원 소진율
한국신원기술대학교	9099.4	2030	1181	57.20%
한국항공대학교	8588.0	1298	1140	87.80%
울지대학교	8539.2	1711	903	52.80%
연서대학교	8425.2	6977	2613	37.50%
이화여자대학교	8454.3	3383	4209	125.20%
추경예술대학교	8186.9	179	168	93.90%
한서대학교	8351.1	837	964	115.20%
한일대학교	8354.4	6965	6279	90.20%
성원대학교	8333	5275	5348	99.50%
홍익대학교	8248.7	4233	4154	98.10%
고려대학교	8243	5959	3586	59.80%
남서울대학교	8198.2	3301	4660	141.20%
한서대학교	8197.1	2421	1551	64.10%
<b>이주대학교</b>	<b>8172.2</b>	<b>3101</b>	<b>1377</b>	<b>44.40%</b>
명지대학교	8148.6	4167	3188	76.90%
단국대학교	8074.2	6472	6859	106.00%
성신여자대학교	8070.8	2820	5225	186.00%
상명대학교	8065.2	3540	4168	117.70%
건국대학교	8033.6	7067	3461	49.00%
송신대학교	8018.3	3614	3513	100.00%

자료: 유기준, 평인추위원회

**대학 자구 소홀...국가장학금 절반 못 받아**  
II유형 5670억원 지원 예산, 28곳 대학은 15곳만 신청도 안 해

올해 대학들의 학비 부담 경감 노력이 본격화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나 자체 장학금 조성을 저울리며 학생들에게 지원을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여러 대학이 제기되고 있다.

유기준 유기준위원장 위원과 장경희 전보장위원 위원은 2013년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규모가 3344억원으로 배정금액(5670억원)의 59.0%에 불과하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70.2%)보다 12%포인트 줄어든 규모다.

◆예종대 등 15곳 신청조차 안 해

올해 2조7750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가장학금은 전체 30개 대학 중 15곳만 신청했다. 지원 대상 대학 15곳은 등록금 인상률과 장학 노력에 관계해 예산편성 형태로 지원하는 II유형으로 나뉘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I유형은 대부분 지원했으나 II유형을 지원받은 대학은 지난해 335곳에서 올해 288곳으로 줄었다. 지난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평균 4.79% 내렸지만 올해는 0.55% 내리는 데 그쳤으며 입학금이 5709억원에서 4659억원으로 줄은 게 문제다. 교비와 외부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대학 자체 장학금 규모도 1677억원에서 949억원으로 감소했다.

개종대 28곳은 올해 교육청 장학금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신청한 대학 가운데 국립 대학 17곳은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자립과대 등 5곳은 기부노력이 전년에 비해 줄어서 중의 기부금 규모도 12% 대학이 등록금 지급 대상으로 승인받지 못했다. 그만큼 해당 대학 개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주요 사립대 자구노력 소홀

등록금이 커진 주요 사립대일수록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반값등록금이라는 학부부 일광을 의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상위 30개 대학 가운데 전체에는 II유형 장학금이 69억원 배정받았다. 실제 지원액은 26억원(기준 37.5%)에 그쳤다. **등록금 인하, 자체 장학금 조성 등 대학의 자구노력 '인정 금액'과 동일하게 지원해** 학생들이 받지 못한 국가 혜택이 43%점에 달했다. **이주대(소진율 44.4%) 건국대(19.0%), 성원대(10.8%) 을지대(12.2%) 등도 전체 평균(59.0%)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반면 울산과 가대는 II유형 장학금 배정에 5억원의 4배가 넘는 22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기울여 예산액 대비 신청 금액 비율이 416.30%를 보였다.

유 기준은 "대학의 노력해 해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국가장학금마저 못 받고 있다"며 "개도외 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3년 국가장학금 II유형 관련 설명 자료-I

(기획처 자료 근거)

- **국가장학금 유형II 2012년 배정 및 집행 실적**
  - 2012 국가장학 배정금액 : 3,473,319천원
  - 2012 국가장학 인정규모 : 2,663,607천원
  - 2012 국가장학 집행금액 : 2,658,702천원
  
- **국가장학금 유형II 2013년 배정 및 집행 실적**
  - 2013 국가장학 배정금액 : 3,101,336천원
  - 2013 국가장학 인정규모 : 1,377,272천원

(배정금액의 44.4%)



## 2013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관련 설명 자료-Ⅱ

- 아주대학교 배정규모 3,101,336천원
- 아주대학교 인정규모 1,377,272천원
  - ① 국가장학금 유형Ⅱ배정금액, 배정금액 확보 조건, 인정 규모 계산식 및 조정계수 통보/인지 여부 및 시점 :  
2013.01.16. 공문 접수
  - ② 국가장학금 유형Ⅱ자구노력계획서 제출 내용 및 일시:  
2013학년도 본예산 이사회 심의의결(2013.02.14.) 후  
등록금 및 장학금 확정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구노력  
계획서를 2013.02.1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시스템  
탑재 (한국장학재단 공문 의거)

## 2013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관련 설명 자료-Ⅲ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인정규모 1,377,272천원 산출 근거
  - 1,377,272천원 = ㉠475,008천원 + ㉡902,264천원
  - ㉠ 2013년 추가자체노력분(475,008천원 = ㉠1,311천원 + ㉡453,697천원)
    - ① 등록금인하인정규모  
21,311천원 = 2012년 평균등록금(8,172.2천원) x 등록금인하율(0.02569%)\*\* x 2013년 재학생수(10,148) x 조정계수 1.0
    - ② 장학금 추가확충인정규모 424,810천원  
453,697천원 = 2012년 결산추정액 대비 확충액 x 조정계수 1.068
  - ㉡ 2012년 자체노력지속분의 30% (902,264천원 = 3,007,547천원 x 0.3)
    - 3,007,547천원 = ㉢2,222,246천원 + ㉣785,301천원
    - ① 등록금인하인정규모  
2,222,246천원 = 2012년 등록금 인하액(2,554,306천원) x 조정계수 0.87
    - ② 장학금 확충인정규모  
785,301천원 = 2012년 장학금 확충액(2,138,770천원) x 조정계수 0.371  
예산대비 926,000천원 확충 주장 (2011 장학 미집행액 포함)

\*\* : 이 계산식의 등록금 인하율과 이미 발표된 등록금 인하율이 다른 이유 - 다음 페이지에 설명

### 2013학년도 명목등록금 및 평균등록금 인하율

- 명목등록금 인하율 : 0.5%
  - 평균등록금 인하율 : 0.026%
  - 명목등록금 인하율과 평균등록금 인하율 차이 발생 사유
    - 명목등록금 인하는 실제 수업료를 0.5% 인하하여 고지서에 반영된 것을 의미하며,
    - 평균등록금 인하는 학과별 학년별 편제정원(4년 입학정원의 합)을 학년별 등록금으로 곱한 후에 이를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실제 고지된 등록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2013년도는 편제정원 조정에 따라 의과대학(8명) 입학정원 순증가, 편제 미완성 학과 금융공학과 (40명)4학년, 약학과(30명)3학년 인원증가 및 기타 타 학과의 증감이 있었음
- 위 3개 학과 수업료는 평균등록금 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 명목등록금의 인하요인을 흡수하여 평균 등록금 인하율이 낮아진 것임.

### 2013년 국가장학금 II유형 관련 설명 자료-IV

#### • 예산편성 시 국가장학금 유형II 고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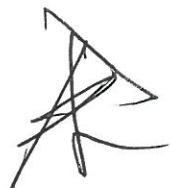
- ✓ 본예산 편성 시점[2012.11.05.(예산편성설명회)~2013.01.08(내부보고)]에는 2013년 국가장학금II유형 자체노력계획서의 작성 방법 및 조건 등이 안내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장학금을 확충하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음.
- ✓ 이에 2013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2012학년도 본예산 기준 장학금 비율이 15.7%였던 데에 반해 17%로 확대 편성하였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을 0.5% 인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음. (학부장학금 13억 5천 확대 편성 ?)
  - ❖ 2012학년도 2차추경 학부등록금 수입 773억원 x 0.157 = 121.36억원
  - ❖ 2013학년도 본예산 학부등록금 수입 772억원 x 0.17 = 131.24억원

(장학금을 학부등록금 수입 대비 18% 또는 19%로 확충하려면 138.96억원 또는 146.68억원 필요, 이는 각각 7.72억원 또는 15.44억원 증액을 의미. 또한, 동일 액수의 국가장학금 추가 확보를 의미. 14억원의 추가장학금으로 1400명에게 백만원씩 지급 가능)

## 2013년 국가장학금 II유형 관련 설명 자료-V

### • 2013학년도 예산편성 및 국가장학금II유형II 업무진행일정표

일 자	업 무 내 용	비 고
2012.12.26	2013년 국가장학금II유형 MOU 제출 요청	참여여부만 확인하는 업무협약
2012.12.27	2013년 국가장학금II유형 MOU 제출	
2013.01.08	2013학년도 본예산(안) 총장 보고	
2013.01.09	2013학년도 본예산(안) 평의원회 자료 송부	
2013.01.16	2013년 국가장학금II유형 자체노력계획서 제출 안내 공문 접수	배정액(31억)/계산식/조정계수/ 제출기한(2013.02.15.)통보
2013.01.18	2013학년도 본예산(안) 평의원회 자문	
2013.01.22	2013학년도 본예산(안) 교무회의 심의	
2013.02.13	2013학년도 본예산(안) 이사회 심의	등록금인하 및 장학금 확정
2013.02.14	2013년 국가장학금II유형 자체노력계획서 제출	이사회 승인 예산 근거, 한국장 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탑재
2013.02.25	2013년 국가장학금II유형 자체노력 인정규모 통보 안내	



## 2013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관련 경과 보고

2013학년도 국가장학금 II 유형 본교 인정금액 13.8억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 경과와 향후 대책(안)을 보고합니다.

2013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각 부서 협조로 비용을 절감하고 기부금을 유치하는 재원 등으로 학부장학금액을 학부등록금대비 17% 수준이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의 자구노력을 매칭개념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본교 배정 금액이 31억원이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3.8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13.8억원은 2012학년도 자체노력지속분 9억원과 2013학년도 자체노력인정분 4.8억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본교 배정 금액 내용을 통보받은 후 장학금을 더 지원받기 위해 추가적인 장학금 확충 및 등록금 인하 등을 고민하였으나, 최대 절감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었기에 추가 장학증액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예산팀장이 기획처장에게 보고)하여 본예산(안)을 재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는 국가장학 I 유형이 전년대비 약 2.7배로 증가 된다는 것을 통보받았기에 가계곤란학생들에 대한 장학지원 정책은 다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2013년 국가장학 II 유형 지원금 소진율이 59%에 그쳐 추가 지원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추가지원 계획이 발표될 경우 본교는 1-1-1 캠페인장학 및 결산 이월금 등을 포함한 장학금 약 5억원을 추가로 확보(국가장학 II 유형 지원액 총액은 18.8억원이 됨)하여 추경절차를 통해 국가장학 II 유형 추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학년도에 추가로 편성하는 장학은 당초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인정비율로 인하여 더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장학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예정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14학년도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정부 정책의 변화나 지침이 공지되지는 않았지만 본예산 편성 시 국가장학금Ⅱ유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최대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평의원회 등 각 관련 기구나 위원회의 충분한 자문과 의견을 얻어 합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립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정부정책에 맞춰 학생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관리비 등의 비용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Ⅱ 지원의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교는 국가장학지원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가장학Ⅰ을 확대 운영하여 정부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등록금 동결 및 인하의 조건과 무관하게 각 대학의 장학금 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의원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국가장학Ⅱ유형 정책에 대한 변화추구 시 도와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평의원회 의원님들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학교가 부족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자문을 요청 드립니다.

2013. 4. 17.

예산팀장 조 경 숙  
 기획처장 김 민 구

※ 국가장학금 국고 총 기본구조

구분	2012 국가장학금 (1조7천5백원)		2013 국가장학금 (2조7천7백50억원)		증가 내역 (1조2백50억원)	
	I 유형	II 유형	I 유형	II 유형	I 유형	II 유형
국가장학금 총액	7,500억원	10,000억원	20,750억원	7,000억원	13,250억원	-3,000억원
소득 구분	소득 기초~3분위	대학자체 노력연계	소득 기초~8분위	대학자체 노력연계		

< 간서명 란 >

의 장

